



땀이 축축하게 땀 어린 것의 손을 잡고

박동규/서울대 국문과 교수

해 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풍경이 있다. 개나라가 피어나는 삼월이면 어김없이 — 처음 학교에 가는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모습이다.

노란 병아리색 옷을 입고 유치원에 다닐 때만 해도 어머니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전에 다녀야 하는 예비교라는 느긋한 마음이었지만 새 봄이 되어 학교배정 통지표를 받게 되면 마음이 변하고 초조한 마음까지 생기게 된다.

이는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교육이라는 체제안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는 기쁨과 함께 부모는 커가는 자식을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아이가 크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아이가 맞아야 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겹쳐지고 다시 이러한 초조함이 '내 아이가 제대로 자랄까' 하는 불안으로 이어져 초조함은 극대화되는 것이다. 내가 처음 아들을 학교에 보내게 되었을 때였다.

학교에 입학하기 며칠전 나는 아내와 들에서 아들을 데리고 큰 백화점에 갔다. 아동복코너를 몇 번이나 돌아다니며 비싼 옷 한 벌을 샀다.

입학식이 있는 날 아침 내가 아들을 데리고 학교로 갔다. 학교에 가보니 벌써 어린아이와 함께 온 부모들로 운동장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갑자기 기가 탁 죽었다. 아들은 모여있는 아이들과 비교할 때 키가 작았다. 줄을 서게 하면 앞에서 몇 번째 쯤 되어 보였다. 그리고 비싸게 사입한다고 사입한 옷이 촌스러워 보였다. 또 다른 아이들은 유치원을 제대로 다녀서 그런지 당당해 보였다. 그런데 아들은 내

성적인데다가 유치원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탓인지 자꾸만 내 등뒤로 붙어 있으려 했다.

이렇듯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답임을 맡은 선생님들이 우르르 나와 각반 줄을 세우는 것이었다.

아들은 키도 작은데 큰 아이들에게 밀려 줄 끝 키 큰 아이 뒤에 서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서 울컥하는 것이 치밀고 있었다.

아들은 앞을 보다가 아이들 뒤에 빙 둘러 서 있는 학부모 사이에 낀 나를 보곤 했다. 이렇게 입학식을 끝내고 집에 오는 길에서였다.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의 반 아이들의 키가 모두 크더라' 하는 말로 내 마음을 달랬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아들은 아내와 함께 학교로 가기 위해서 대문에 섰다. 아들은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니 골목 끝에 가더니 뒤돌아 뛰어와 내 목에 매달려서 귀에다 작은 소리로 '아버지, 키 큰 아이들보다 더 잘할게' 하고 뛰어가는 것이었다.

아들을 보내고 한참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들은 어제 아버지가 돌아오면서 키 큰 아이들이 많다고 한 말을 가슴에 품어 두었다가 나를 위로한 것이었다. 어린 것이 처음 학교에 가면서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는가. 아버지가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기에 어린 것이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나를 위안해 준 것이었다.

아이보다 못하고 살아서야 되겠는가. 이제 새봄이 왔다. 어린 것의 땀이 축축히 땀 손을 잡고 학교로 가는 부모의 마음속에 어린 것의 걱정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사는 것이다.

